

# 陶淵明과 寒山子の 歸隱 樣相 比較

李 旻 熙\*

## < 목 차 >

1. 서론
2. 중국의 隱逸文化와 陶淵明 및 寒山子
  - 1) 唐 이전의 은일문화와 陶淵明의 歸隱
  - 2) 唐代 은일문화와 寒山子の 歸隱
3. 天性和 失意-陶淵明과 寒山子の 歸隱過程 比較
  - 1) 출사와 귀은
  - 2) 가난과 귀은
4. 安息과 彷徨-陶淵明과 寒山子の 歸隱後 比較
5. 결론

## 1. 서론

宋代 시인 黃山谷은 寒山詩를 좋아하여<sup>1)</sup> 늘 붓글씨로 쓰고 애송하였다.<sup>2)</sup> 뿐만

\* 배재대학교 전임강사

- 1) “前身寒山子, 後身黃魯直. 頗遭俗人惱, 思欲入石壁.” 《山谷集》(別集卷二) 즉 황산곡은 자신을 한산자의 後身이라 표현하며 것처럼 “入石壁” 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황산곡의 한산자에 관한 문장은 산곡집 여러군데 보인다. 즉 《山谷集》外集卷九, 〈書王孝子孫寒山詩後〉에서는 “東川孝子耳目聰明, ……觀寒山之詩, 亦不暇寢飯矣…”라며 발분망식 열심히 한산시를 읽는 小孫을 칭찬하고 있다. 또한 《山谷集》別集十二, 〈跋寒山詩贈王正仲〉에서는 “此皆古人沃衆生業火之具, 余聞王正仲, 閉關不交朝市之士, 其子鑄, 參禪學道, 不樂火宅之樂, 因余姪穰求書, 故書遺之.” 즉 한산시를 “皆古人沃衆生業火之具”로 평하고 있다. 그밖에 〈再答并簡康國兄弟四首〉에서는 한산을 “妙舌寒山一居士”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 2) 《石門文字禪》卷二十七, 〈又詩〉 “山谷嘗喜書之, …” 또한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발행한 《古宮書法》 第十輯下 pp18-24 에도 한산시 두 수가 실려 있다. “我見黃河水, 凡經几度清. 水流如急

아니라 그의 시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는데, 일본의 白隱禪師가 펴낸 <寒山詩闡提紀聞>에 기록된 黃山谷과 晦堂 寶覺禪師와의 대화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 황산곡은 “앞으로 10년 더 시를 쓰고 글공부를 하면 혹 陶淵明의 수준은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寒山子의 시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따라 갈 수 없을 것”<sup>3)</sup>이라며 한산시를 격찬하였다. 회당이 다시 황산곡에게 한산시로 和韻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옛날 杜甫는 한산시를 보고 입을 다물었는데, 제가 어찌 감히 和韻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럭히 잡아 한평생 혹 다음 생까지 시를 쓴다 해도 杜詩의 경지에 이르기에도 힘들텐데, 하물며 한산자라니요?4)” 이는 황산곡이 한산시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宋나라 승려 覺範의 <友詩>를 보면 황산곡이 한산자를 도연명의 亞流로 인식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5)</sup> 이러한 평가는 “10년만 더 시를 쓰고 글공부를 하면 도연명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한산자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따라 갈 수 없다”는 황산곡의 말과 일견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가 한산자를 도연명의 ‘아류’라고 평한 황산곡의 견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산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산자를 도연명의 아류라고 한 주장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東晉과 唐代라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한산시의 분석을 통해 도연명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연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한산자의 歸隱이다. 도연명과 한산자 모두 중년이후 귀은하였고, 훌륭한 작품은 대부분 이 때에 나왔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단순히 ‘隱逸’의 관점에서만 보면 도연명과 한산자는 여러 유사성이 있어 ‘한산자는 도연명의 아류’라는

箭，人世若浮萍。痴屬根本業，无明煩惱坑。輪回几許劫，只爲造迷盲。”“寒山出此語，夏似顛狂漢。有事對面說，所以足人怨。心真出語直，直心无背面。臨死度奈河，誰是嚙羅漢。冥冥泉台路，被業相拘絆。”

3) 관련내용을 보면 “昔寶覺禪師，嘗命太史山谷道人和寒山詩，山谷諾之。及淹旬不得一辭。後見寶覺曰：更讀書作文十年，或可比陶淵明，若寒山子者，雖再世亦莫能及”。《編年通論》第二十卷，白隱禪師著，《寒山詩闡提紀聞》，魏子雲，《寒山識小錄》P21，《中國詩季刊》4卷5期에서 재인용.

4) “晦堂云：庭堅今以詩律鳴天下也，爲寒山詩者，廣韻得和否？魯直答云：杜少陵一覽寒山詩結舌耳，吾今歲敢容易可和韻哉！直饒雖一生二生，而作詩吟，難到老杜境界，矧亦寒山詩哉！” 위와 같음.

5) “山谷論詩，以寒山爲淵明之流亞”。《石門文字禪》卷二十七

황산곡의 평가가 일단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도연명과 한산자는 활동했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랐던 만큼 그들의 삶의 양식 또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두 사람의 성품과 귀은 과정, 그리고 귀은 이후의 생활은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 역시 적지 않다. 즉 도연명은 몇 번에 걸쳐 관직에 진출하나 얼마 못가 그만두고 귀은하지만, 한산자는 끈질기게 관직진출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후 귀은하였다. 도연명이 自意的 歸隱인 반면 한산자는 사실상 他意的 歸隱인 만큼, 양자 간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으며, 결과 또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산자는 도연명의 아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宋代 黃山谷이 唐代 寒山子를 東晉 陶淵明의 아류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작성의 동기는 비록 황산곡의 한산시 평가가 계기가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唐代的 隱逸詩人 한산자와 六朝시대의 田園詩人 도연명과의 비교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 2. 중국의 隱逸文化와 陶淵明 및 寒山子

### 1) 唐 이전의 隱逸文化와 陶淵明

隱逸문화는 봉건진제군주사회에서 傳統 사대부들이 오랫동안 선망해왔던 문화의 하나이다. 隱士는 군주는 물론 일반인으로부터도 존중을 받았다. 隱逸이란 정치적 대격변의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류문화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거나, 혹은 그 문화가 주도하는 사회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현실 사회에서의 활동을 접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행위나 심리상태<sup>6)</sup>를 의미하고, 隱士는 재능과 덕을 갖추었음에도 관직을 마다하고 자신의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 은거

6) “或隱居以求其志，或曲避以全其道，或靜已以鎮其躁，或去危以圖其安，或垢俗以動其靜，或疵物以激其清。”《后漢書》〈逸民列傳序〉

한 인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중국에서 隱逸의 역사는 許由와 伯夷, 叔齊 등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 문화로서 형성된 것은 春秋戰國시대 이후이며, 兩漢을 거쳐 清談思想이 풍미했던 魏晉시대에 극성하였다. 이때까지의 은사의 성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였지만<sup>7)</sup>, 唐代에 이르면 크게 변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보면, 唐代 이전의 은사는 대개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sup>8)</sup>. 첫째 유형은 부정한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자연에 귀은한 은사이고, 둘째 유형은 관직에 뜻은 있으나 적용에 실패하고 귀은한 은사이다. 셋째 유형은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 귀은한 정치권 은사이고, 넷째 유형은 흔히 終南捷徑으로 불리우는, 즉 은거를 자신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자 귀은한 은사이다. 이중 당대 이전까지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유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네 번째 유형은 당대 이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한다.

위 4개 유형 중 도연명은 전형적인 두 번째 유형의 은사이다. 〈歸園田居〉, 〈飲酒〉, 〈桃花源記〉, 〈五柳先生傳〉 등의 作品은 그의 대표 작품이지만, 귀은의 정서 등이 잘 표출되어 있어 隱逸문학의 대표작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논지의 취지에 맞추어 주로 한산자 귀은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도연명과 비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2) 唐代 隱逸문화와 寒山子의 歸隱

唐朝에 들어와 隱逸문화는 크게 변하기 시작한다. 특히 唐朝가 隱士를 존중함에 따라 사대부 사이에서는 은사로 처신하며 출사 기회를 노리는 은사들이 증가한다.

이러한 唐代 은사풍토의 大變은 기본적으로 과거제도의 시행과 깊은 관련이

7) 《新唐書》에서는 당대 이전의 은사에 대해 3개의 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後韓書·逸民列傳序〉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參閱, 《新唐書》〈隱逸傳〉참고.

8) 李曉菡·徐永昕, 〈典故中的中國古代隱士文化〉, PP12-13, 語文學刊, 第11期., 2005년

있다. 과거제도가 사대부들에게 출세의 관문이 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대부들이 은거하게 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한다. 게다가 과거에서 낙방한 인사들이 돌아가지 않고 은사로 남음으로서 더욱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들을 분류해보면, 첫째는 출사를 위해 일찍부터 은거하며 과거를 준비한 은사, 둘째는 출사를 미루면서 은일한 은사, 셋째는 과거실패 또는 파직 등으로 은거한 은사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9)</sup>.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대부분 출사의 뜻이 있어 순수한 의미의 은사는 아니다. 한산자는 이들에 대해 文武를 배웠지만 文으로도 상을 받지 못하고, 武로도 훈장을 받지 못한 자 들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sup>10)</sup>. 《新唐書》와 《舊唐書》에는 29명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10명은 끝내 출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지만, 長安에 은거하며 봉록을 받은 孫思邈이나 과거에 실패하여 은사가 된 2명을 제외하면 출사와 무관한 순수한 은사는 7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는 陶淵明처럼 대부분 출사와 은거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唐代 은사들에게는 왕왕 終南捷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붙기도 하였다.

당시 은사들에게 隱과 仕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대체로 생계문제였고, 唐代 隱士의 순수성 쇠퇴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은사들은 풍족한 생활을 경계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儒佛道 三教가 함께 유행하던 唐代 학술환경에 따라 대부분의 은사들도 儒佛道를 넘나드는 폭넓은 사상적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한산자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 한산자는 귀은 전까지 長安에서 과거를 준비하였다.<sup>11)</sup> 그러다가 계속된 과거 실패로 인해, 나이 30여세 때 가족들과 함께 浙江省의 天台山 기슭에 귀은한다.<sup>12)</sup> 하지만 한 차례도 출사하지 못한 탓에,

9) 吳在慶 〈談唐代隱士的隱逸動機與歸隱之路〉, 周口師範大學學報, 第21卷, 第4期., PP27-33.

10) “一爲書劍客, 二遇聖明君. 東守文不賞, 西征武不勳”

11) 한산자의 貫籍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張伯偉은 《寒山詩與禪宗》에서, 李振杰은 《寒山和他的詩》에서 咸陽說을, 그리고 錢學烈은 《寒山詩校注》에서 長安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황으로 보아 장안설이 근거가 있다고 본다.

12) 唐 至德一年(756) 安史의 난의 혼란을 피하여 많은 中原人士들이 南下하여 “移民潮”를 이루었는

귀은 후에도 한동안 출사에 대한 미련으로 출사의 기회를 엿보곤 한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고, 가족과도 이별한 채 산 속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한산자의 귀은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산자의 귀은도 두 단계로 나누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산시에는 처음 귀은했던 천태산 자락의 집을 70년 만에 방문했다는 시<sup>13)</sup>가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귀은 기간이 대개 70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70년간의 귀은생활도 크게 1차귀은과 2차귀은의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야 할 것이다. 1차귀은이 과거실패이후 황당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족과 함께 농사짓던 시기라면, 2차귀은은 가족은 물론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산중에 들어가 儒佛道를 넘나들며 亦隱亦僧, 또는 신선처럼 자유자재의 경지에 도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산자의 1차귀은은 隱士의 순수성이 쇠미했던 당대 隱士문화가 반영된 시기였고, 2차귀은은 儒佛道를 넘나들며 隱士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자유를 구가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한산시 대부분은 2차귀은 이후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2차귀은 이후 자유자재의 은사생활을 영위한 한산자에 대한 尊崇이 性理學을 추구했던 宋代에 들어와 평가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황산곡의 한산자 평가 또한 이러한 송대의 문화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 3. 天性和失意-陶淵明과 寒山子の 歸隱 過程 비교

#### 1) 出仕와 歸隱

도연명과 한산자는 둘 다 어려서부터 經學을 공부하며<sup>15)</sup> 經世의 포부를 품었

데 이때 한산자도 南遷移民중의 한사람으로 天台山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羅時進〈寒山的身分與通俗詩敘述角色轉換〉, 《江海學刊》, 2005. 2

13) “昔日經行處, 今復七十年. 故人無往來, 埋在家冢間.”

14) 한산자 말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拙文〈寒山子の 精神世界〉, 《인문논총》, 11-1집, 1997.

11. 배재대 인문과학연구소를 참고 바람 .

지만 모두 포부를 이루지 못한 채 귀은하였다. 이 점 만을 보면 두 사람의 생애는 유사하지만, 귀은까지의 과정은 사뭇 다름을 볼 수 있다. 중국사대부에게 관직진출은 첫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 실현의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현실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실현이 우선이라면, 생계는 부차적이었다.

도연명의 출사는 29세에 江州 祭酒, 34세에는 당시 重臣이던 桓玄의 막료, 40세에는 鎮軍參軍, 41세에는 建威參軍을 역임하고, 그 후 彭澤令에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42세에 귀은하였다.<sup>16)</sup> 그는 63년 생애 중 겨우 13년 동안 관직에 있었다. 이 짧은 기간에도 그는 네 번에 걸쳐 출사와 귀은을 반복한다. 길게 한 것이 2년 정도(桓玄幕下)이고, 가장 마지막 관직이었던 彭澤令은 불과 80여일 만에 그만두고 만다. 왜 이토록 도연명은 출사와 귀은을 반복 하였을까?

도연명이 살았던 東晉시대는 九品中正制로 인해 조장된 문벌정치가 만연하여 대체로 출신 가문에 의해 관직이 결정되는 시대였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 하더라도 寒門출신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도연명도 젊은 시절에는 濟世의 큰 뜻을 품고<sup>17)</sup>,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포부는 기본적으로 관직진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기에<sup>18)</sup>, 수차에 걸쳐 계속 出仕를 시도한다.

한산자도 은거이전에는 도연명과 비슷한 인생행로를 보이고 있다<sup>19)</sup>. 그가 젊은 시절 浩然之氣를 기르며 학업에 몰두한 것도 물론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였다.

15) 飲酒 其十六 “少年罕人事, 游好在六經”, 한산시 “雍容美少年, 博覽諸經史. 盡号曰先生, 皆称为學士.”

16) 차주환 《陶然明全集》,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320-329

17) “少時壯且厲, 撫劍獨行游.(젊어서는 씩씩하고 굳세어, 검 어루만지며 홀로 여행하였노라)” 〈擬古〉第九 또한 “猛志逸四海, 鶩翮思遠翥.(맹렬한 뜻이 사해까지 이르고, 깃을 펴고 멀리 날아오를 생각을 하였도다.)” 〈雜詩〉其五

18) “進德修業, 將以及時, 如彼稷契, 熟不願之” 〈讀史述九章〉에서 보듯 적극적인 출세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19) 문헌에서 흔히 “隱士”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天台山 자락에 은거한 것은 30세 이후이다. “出生三十年, 當游千万里. 行江青草合, 入塞紅塵起. 煉藥空求仙, 讀書兼咏史. 今日歸寒山, 枕流兼洗耳.”

글씨와 글은 모자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벼슬을 얻지 못했구나,  
시험관에게 허리가 꺾였으니, 때를 씻어가며 흉터를 찾았구나,  
필경 하늘의 운수 이려니, 금년에 다시 시험 보리라.  
장님이 새 눈을 쏘아도, 우연히 맞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sup>20)</sup>

어떤 가난한 선비, 가끔 南院을 살피러 온다.  
나이는 삼십 남짓, 일찍 네 다섯 번 뽑혔다.<sup>21)</sup>

첫 시에서는 비록 과거에 낙방하였으나 굴하지 않는 젊은이의 패기 넘치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다음에 다시 응시하면 된다는 여유만만한 태도를 통해 젊은 시절 한산자의 낙관적 인생태도가 보인다. 그런데 두 번째 시에서는 계속된 낙방으로 암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시에서 보듯이 한산자는 삼십을 넘어서까지 계속 出仕를 시도하였던 것 같다.

이처럼 젊은 시절 도연명과 한산자가 비슷한 행보를 밟은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 현상이어서 두 사람 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도연명은 출사에는 성공하였지만 출사와 귀을 반복하고, 한산자는 끝내 출사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도연명은 29세부터 출사하지만 그가 맡은 관직은 '祭酒'나 '參軍'과 같은 말단 하위직에 불과하고, 문벌정치의 환경에서 도저히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sup>22)</sup>. 따라서 곧 사직하지만 생계 때문에 다시 출사하였다가 다시 귀은하는 등 출사와 귀을 반복하다 13년 만에 완전히 귀은하고 만다. 그렇다면 생계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왜 끝내 귀은하였을까?

춤춤 그물을 엮으니 물고기는 두려워하고, 커다란 그물을 만드니 새들이 놀라게 되었다.  
저 통달한 사람이야 잘 깨달아, 이에 관직에서 달아나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sup>23)</sup>

20) "書判全非弱, 嫌身不得官. 銓曹被拗折, 洗垢覓瘡癩. 必也關天命, 今冬更試看. 盲兒射雀目, 偶中亦非難.."

21) "個是何措大, 時來省南院. 年可三十餘, 曾經四五選."

22) .윤석우 《음주시에 나타난 중국시인의 정신세계》, 연세대 박사논문 2005 pp41-44에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시에서 보면 그는 자신을 물고기와 새에 비유하면서, 작은 관직이건 큰 관직이건 성격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표현한 것 같다. 그러면서 봉록 때문에 받아야하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구가한다는 의지가 보인다. 또:

함께 옛날 공명을 쫓던 명사들, 강개한 마음으로 한 세상을 다투지만, 일단 백년을 마차치고 나서는, 서로 북망산에 돌아간다. ....영화가 참으로 귀하다지만 역시 또다시 가련하고 가슴 아프구나.<sup>24)</sup>

가지는 처음에는 무성해지려는데, 갑자기 산하가 바뀌어버렸다. 뿌리와 그루는 창해에 떠돌고, 봄 누에는 먹을 것 없으니, 겨울옷은 누구에게 기대하나. 본래 고원에 심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무엇을 후회하리.<sup>25)</sup>

위 시에서도 도연명은 근본적으로 관직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별로 없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투어가며 공명을 쫓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 강한 회의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시에서는 당장의 생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관직을 버렸음에도 전혀 후회없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도연명은 관직에 대해 관심과 기대는 있었지만, 천성적으로 정치적 충돌을 기피하는 소극적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문벌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포기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일찍이 관직에 대해 회의하다 결국 五斗米 봉록의 구속으로부터도 벗어날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는 나이 42세로 이미 대 가정의 가장이었다.

도연명도 이러한 자신의 천성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 시에서 그는“본래 마음은 전원을 좋아 했노라, 인간 속세는 진실로 물러나야 하겠노라.(靜念園林好, 人間良可辭)”라며 退隱이 자신의 타고난 성격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래 자연을

23) “密网裁而魚駭, 宏羅制而鳥驚. 彼達人之善覺, 乃逃祿而歸耕” 〈感士不遇賦〉

24) “古時功名士, 慷慨爭此場. 一旦百歲后, 相與還北邙, ……榮華誠足貴, 亦夏可憐傷.” 〈雜詩〉其四

25) “枝條始欲茂, 忽值山河改. 柯叶自摧折, 根株浮滄海. 春蠶既無食, 寒衣欲誰待. 本不植高原, 今日夏何悔.” 〈雜詩〉其九

좋아하고 구속을 싫어하여 관직에 나가서도 계속 물러날 것을 생각하였던 것 같다<sup>26)</sup> 심지어 부임하는 도중에 귀을 생각하는 시를 짓는 것<sup>27)</sup>도 이러한 연유라 하겠다.

이러한 천성이 드러나는 시는 여러 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老莊사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세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산을 좋아하여<sup>28)</sup>, 세상에서의 出仕를 “塵網” 혹은 “樊籠”으로 비유한 반면, 〈歸去來兮辭序〉에서는 자신의 귀을 “質性自然”<sup>29)</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도연명의 귀은생활은 물고기가 물에 돌아온 듯 활기차고 생기가 났다.<sup>30)</sup>

이에 비해 한산자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이상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과거의 낙방으로 꿈 한번 꺾이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게 된다. 당시 그는 겨우 30살을 갓 넘긴 청년으로 꿈을 접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다. 당시 그도 이미 가정이 있어 가장으로서 과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처지였고, 농사라도 지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귀은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부득이한 고육책이었다. 따라서 도연명과 비교할 때 도연명은 출사 13년 동안 귀을 준비한 셈이라면, 한산자는 본래 성격도 낙관적이었고 과거급제를 자신하였기 때문에, 낙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매우 당혹스런 상태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머나먼 천태산 기슭으로 귀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크게 보면 아예 출사를 못한 한산자나 출사했지만 출사와 귀을 반복한 도연명이나 출사에 관한한 사실상 똑 같이 실패했다. 차이가 있다면 출사욕구가 강한 한산자는 출사하지 못한 반면, 출사욕구가 크지 않았던 도연명은 오히려 출사하였다는 점이다. 즉 도연명은 29세에 처음으로 江州의 祭酒로 잠시 임명되었

26) 〈庚子歲五月中從都還阻風於規林二首〉其二

27) “真想初在襟，誰謂形迹拘。聊且憑化遷，終反班生廬。(처음부터 참되게 살고픈 마음은 마음에 있었으니, 누가 외형에 구속되리라고 이르겠는가. 잠시 변하는 시운을 따라 돌지만, 결국은 반선생 집 같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始作鎮作軍參軍經曲阿〉

28) “少無適俗韻，性本愛邱山” 〈歸園田居〉其一

29) 及少日，眷然有歸與之情。何則？質性自然。“벼슬한지 며칠이 안되어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왜 그럴까? 본성과 성품이 무위자연을 닮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30) “羈鳥戀舊林，池魚思故淵。開荒南野際，守拙歸園田。” 〈歸園田居〉其一

다가 사직하고 다시 州에서 主簿로 불렸음에도 나가지 않았지만, 한산자는 30세까지 줄곧 出仕하려고 애썼다. 따라서 도연명이 현실사회에서의 적응력 부족으로 자신의 이상실현을 포기한 것이라면, 30여세의 젊은 한산자는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강렬했던 욕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도연명은 귀은이후 전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지만, 한산자는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 2) 가난과 귀은

도연명은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쇠락하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부담은 심각하였던 것 같다.<sup>31)</sup> 〈歸去來兮辭〉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집은 가난해 밭을 갈아도 자급할 수가 없다. 어린애들은 집에 가득한데 향아리에는 저장해둔 곡식이 없다. 생육하고 생활할 밑천을 마련할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친구들이 내게 관리가 되라고 여러번 권하여.. 마침내는 작은 마을에 기용되게 하였다”<sup>32)</sup>

위의 글에서 그는 출사가 주로 가족의 생계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첫 出仕에 대해서도 “오랜 굶주림의 괴로움(苦長飢)”으로 인해 부득이 “벼슬로 나아갔다.(去學仕)<sup>33)</sup> 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사는 생계문제의 해결이 1차적이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의 실현은 부차적이었던 것 같다. 도연명이 出仕와 귀은을 반복한 근본 원인도 “家貧”에 있었다. 그가 桓玄의 막하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 지은 시에서 “공자의 남겨 준 가르침이 있으니, 도를 걱정하고 가난은 걱정하지

31) “弱冠逢世阻” 〈怨詩楚調示龐薄郭治中〉, “弱年逢家乏” 〈有會而作〉

32) “余家貧, 耕植不足以自給. 幼稚盈室, 瓶無儲粟, 生生所資, 未見其術. 親故多勸余爲長吏, …遂見用于小邑.”

33) “疇昔苦長飢, 投未去學仕. 將養不得節, 凍餒固纏已. 是時向立年, ……” 〈飲酒〉其十九

말리는 것이다”<sup>34)</sup>라고 읊고 있다. 즉 歸隱 이후에도 그에게 중요한 話頭는 가난이었던 것 같다. 35세 때에는 劉牢之의 參軍으로 들어가 절강성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孫恩을 토벌하기 위해 종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지은 시에서, “예전에 일찌기 먼곳에 노닐어 곧바로 동해가에 이르렀다.... 이 행로 누가 그리 시켰는가, 굶주림이 내몬 것 같구나”<sup>35)</sup>라고 읊고 있는 것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문집 마지막에 수록된 〈自祭文〉은 그가 63세 세상을 뜨기 2개월 전에 지은 것인데,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사람으로 태어난 후 가난한 운명을 만나,  
일단사 일표음으로 쌀독 자주 비었으며 한 겨울에도 거칠고 가는 배옷 입었다.  
기쁨으로 골짜기 물을 길고 땀감을 지고 가며 노래를 부르고,  
어스를 사립문 안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였다.<sup>36)</sup>

위에서 보듯이 도연명은 가난을 물려받아 어린시절부터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지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순응하고자 노력하면서, 결코 세상에 대해 원망하거나 격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출사가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면, 이는 도연명이 당시 일반적 사대부들과는 상당히 다른 의식의 소유자였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가난만 아니라면 굳이 출사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보듯이 도연명은 본래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도연명은 가난 때문에 출사하고, 천성 때문에 귀은한 셈이다. 이에 반해 한산자는 도연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인다.

한산자는 도연명에 비해 유식하고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다. (“父母讀經多, 田園不羨他”) 어린 시절부터 출사를 목적으로 학업과 체력을 연마하여 문무를 고루 갖추었으며 (“少年學書劍”, “學文兼學武”), “男兒大丈夫, 一刀兩斷裁(사내 대장 부라면 한 칼로 두 동강을 내리라)”에도 잘 드러나듯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갖추고

34) “先師有遺訓, 憂道不憂貧....”. 〈癸卯歲始春懷古田舍〉其二.

35) “在昔曾遠遊, 直至東海隅.... 此行誰使然, 似爲飢所驅....” 〈飲酒〉其十

36) “自余爲人, 逢運之貧. 簞瓢屢罄, 絺綌冬陳. 含歡谷汲, 行歌負薪. 翳翳柴門, 事我青農.”

자신감이 넘쳤다. 따라서 한산자에게 출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한 수단이었고, 사실상 유일한 인생 목표였다. 따라서 수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출사 의지를 쉽게 접을 수 없었다. 또한 이상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는 한산자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귀은 이후 사회를 향한 많은 시를 쓰게하여 현존의 600여수를 남겼다. 특히 1차 귀은에서는 출사의 미련으로 天台山에 은거하면서도, 자주 官園을 들락거리기까지 하였다. 이는 시종 사회진출에 소극적이었던 도연명과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원래 한산자의 출사 의지는 가난과 깊은 상관이 없었다. 그러다가 낙방 이후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출사해야 하였다. 따라서 한산자의 가난에 대한 태도는 安貧樂道하는 도연명과 사뭇 다르다. 관직에 오른 적이 없는 그가 겪은 가난은 도연명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다. 한산자가 가난에 대해 읊은 시는 여러 곳에 보인다.

주머니 속에는 돈 한푼 없고, 상자 속에는 시만 가득하다.  
가다가 식당 앞을 지나면, 감히 잠시도 얼굴을 돌리지 못한다.<sup>37)</sup>

동전 한낱 없어 끼니조차 해결 못하는 처량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벼슬 외에는 아무런 삶의 방책이 없었던 한산자의 극한 상황이 그대로 느껴진다.

여기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사람 있는데, 타고나기를 고기와는 인연이 없다.  
언제나 사당 축대 밑에 있다가는, 가끔 길모퉁이에 나와 울부짖는다.  
여러 날 부질없이 밥을 생각하고, 겨울에도 속옷을 모른다.  
오직 한뭉음 풀을 가졌고, 다섯 되의 밀가루를 가졌다.<sup>38)</sup>

이 시에서 겨우내내 속옷도 없이 사당 돌기둥 밑에 살면서 때때로 길모퉁이에 나와 배고파 울부짖고 추운겨울에도 이불 없이 벗짚으로 잠을 자는 처참한 “飢寒

37) “囊里无青蚨, 篋中有黄絹. 行到食店前, 不敢暫回面.”

38) “大有飢寒客, 生將蠶魚殊. 長存磨石下, 時哭路邊隅. 累日空思飯, 經冬不識襦. 唯賣一束草, 并帶五升麩.”

객'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한산자도 도연명처럼 자신의 가난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도연명이 “쌀독 자주 비어도 늘 편안하였다(屢空常晏如)”<sup>39)</sup>와 같이 가난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이지만, 한산자는 “여러 날 부질없이 밥을 생각”하며 가난에 대해 줄곧 전전궁궁하며 몸부림쳤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수레바퀴 자욱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살려줄 한 말(斗)의 물이 필요하다고 절절히 외쳤다.<sup>40)</sup> 한 때 경세의 꿈을 품으며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였던<sup>41)</sup> 그에게 빈곤은 너무 큰 고통이었던 것 같다. 그는 차츰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급기야는 아내로부터도 버림받고 결국 자신을 둘러싼 현실로부터 떠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한산자를 2차귀은으로 내몬 것은 경제적 궁핍이다. 도연명의 귀은이 자의적이라면 한산자의 모든 귀은은 궁여지책의 수동적 선택이었다. 궁핍한 생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사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도연명이 21세쯤에 지은 〈乞食〉을 보면, “끓주림이 나를 몰아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구나. 가다가 마을에 이르러 문 돌리고 어눌하게 말문을 연다.....날 저 물도록 답소하며 잔 권하면 문득 마셔 버린다....”<sup>42)</sup>에서 볼 수 있듯이 도연명은 걸식하면서도 시를 주고 받으며 술까지 마시는 여유와 자연스런 성격을 볼 수 있다. 반면 한산자는 남들로부터 “미치광이(顛狂漢)” 취급을 받았고<sup>43)</sup> “일이 있으면 맞대 놓고 말하기에, 항상 남의 원한을 산다”는 직설적인 강한 언행과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으로 도연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연명은 끝내 남을 원망하지 않지만, 한산자는 부자들에 대해 비판과 냉소

39) 〈始作鑿作軍參軍經曲阿〉

40) “少小帶經鋤，本將兄共居。緣遭他輩責，剩被自妻疏。拋絕紅塵境，常游好閱書。誰能借斗水，活取轍中魚。”

41) “父母鑿經多，田園不羨他。婦拈機刺刺，兒弄口過過。拍手摧花舞，支頤听鳥歌。誰當來莫賞，樵客屢經過。”  
젊어서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부지런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남부럽지 않게 즐겁게 전원생활을 하는 모습이다. 아마도 한산에 들어오기 훨씬 전 농촌에 살았을 때의 모습인 듯하다.

42) “饑來驅我去，不知竟何之。行行至斯里，叩門拙言辭。.....談海終日夕，觴至輒傾杯。”

43) “寒山出此語，夏似顛狂漢。有事對面說，所以足人怨。”

를 보내는가하면 원망과 격분을 숨기지 않았다.

부자들 일에 정신없이 허덕이며, 일마다 승낙하려 하지 않는다.  
창고의 쌀은 붉게 썩어 가도, 남에게 한 되도 꾸어주지 않는다.  
게다가 갈고리 마음 가져, 비단을 사도 먼저 문체비단 가린다.  
임중하는 날, 조상객은 파리만 있으리라..<sup>44)</sup>

부자들 高堂에 모였는데, 화려한 등이 휘황찬란하다.  
이때 등불 없는 사람, 그 곁에 머무르기 원했다.  
뜻하지 않게 배척을 받아, 다시 어두운 곳으로 감추어진다.  
남을 비춘다고 빛에 무슨 손해인가, 이상해라, 남은 빛 아끼는 것.<sup>45)</sup>

두 편의 시 모두 인간의 욕심에 대해 훈계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부자들의  
옹졸함과 무정함에 대해 비난하고 야유하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가난은 도연명이나 한산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리고 도연  
명에게 가난은 출사의 동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귀은하고 만다. 따라서 도연명의 귀은은 가난보다는 오히려 그의 천성  
과 관련이 있다. 반면 한산자에게 가난은 출사 동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출사 실패  
로 인해 발생한 가난은 그를 감당할 수 없도록 했고, 마침내 1차귀은에 이른다. 그  
러나 1차귀은의 전원생활 적응에 실패하고, 더욱 극심해진 가난에 직면하면서 마  
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훌훌 털고 2차귀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4. 安息과 彷徨-陶淵明과 寒山子の 歸隱 後 비교

한산자는 과거 실패이후 심각한 빈곤 상황에 직면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인 陝西省 咸陽<sup>46)</sup>을 떠나 머나먼 행로 끝에 浙江省의 天台山 자락에 은거한다.<sup>47)</sup>

44) “富儿多鞅掌, 触事難踰承. 倉米已赫赤, 不貸人斗升. 轉懷鉤距意, 買絹先揀綾. 若至臨終日, 吊客有蒼蠅.”  
45) “富儿會高堂, 華灯何炫煌. 此时无燭者, 心慙處其傍. 不意遭排遣, 還歸暗處藏. 益人明証損, 曠利惜餘光.”

그때 그의 나이 삼십세 가량으로, 이것이 한산자의 1차귀은이다. 그가 1차귀은 때 살던 곳은 “村鄉”, “田家”로 표현된 농촌 마을이었다. 당시 그는 이름도 성도 숨기고 있는데 이는 그가 과거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48) 한산자는 귀은 후 어떻게 지냈을까? 도연명처럼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지냈을까?

도연명은 귀은 이후 “네모진 택지는 십여 무, 초가집은 팔구 간.(方宅十餘苗, 草屋八九間.)”, “뜰 안에는 띠끌 먼지 없으며, 텅 빈 방은 한가롭다(方宅十餘苗, 草屋八九間, “戶庭無塵雜, 虛室有餘閒”49)에서 보듯이 속세를 벗어난 자유로움과 한가로움이 배어난다. 심지어 가족에게 유난히 자상했지만 자식들이 글공부에 게을리해도 운명에 맡기자는 무위자연의 유유자적한 태도를 보인다50).

반면 한산자는 은거 중에도 “말이 없으면 뒷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펴겠느냐. 숲속에 숨어 살기만 하면 지혜의 경지는 어디서 생기겠는가.(默默永無言, 后生何所述. 隱居在林藪, 智日何由出.)”라며 “한가한 때 즐거이 시를 짓고, 끄끙거리며心力을 다해 글을 썼다(閑居好作詩, 札札用心力)”라고 하여 후세 사람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현실지향적 정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발생은 벼슬에 대한 집착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한산자는 시종 벼슬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朱雀街”를 쫓아다니지만(“浪行朱雀街”), 도연명은 기회가 되면 한다는 정도였다(“時來苟冥會”). 도연명에게 귀은은 자발적 선택이었다. 한산자도 표면적으로는 도연명의 歸去來兮를 표방하지만, 벼슬 실패 후 절망감과 격분에 휩싸인 채 자신의 실패를 懷才不遇로 규정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천태산으로 입산하였던 것이다.

하늘이 백척 되는 나무를 내어, 다듬어서 긴 제목을 만들었다.  
애석하게도 棟梁의 제목이, 깊은 골짜기에 버려져 있구나.

46) 羅時進, 《唐詩演進論》, PP115-116, 江蘇, 古籍出版社 2001

47) “卜擇幽居地, 天台更莫言. 猿啼庫霧令, 岳色草門連. 折叶覆松室, 開池引澗泉. 已甘休万事, 采蕨度殘年.”

48) “我住在村鄉, 無爺亦無娘. 無名無姓第, 人喚作張王. 并無人教我, 貧賤也尋常. 自憐心的實, 堅固等金剛.”

49) 〈歸園田居〉其一

50) 〈賁子〉

해는 오래 되었어도 심지는 오히려 굳센데, 오래되어 껍질이 차츰 벗겨지는구나.  
알아주는 이 있어 가져다 쓰면, 아직도 마곳간 기둥은 될 만하다.<sup>51)</sup>

위의 시는 출사에 실패하고 한산에서 나무를 베고 다듬으며 살아가는 한적한 농촌생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과 함께 뜻을 못 이룬 억울한 심정을 표출하면서 출사에 대한 강한 욕구와 집념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귀은의 한가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초가집에 시골사람 사는데, 문 앞에는 車馬의 시끄러움이 없다.  
깊은 숲속엔 한갓 새들 모이고, 넓은 시내엔 물고기 있다.  
산과실은 아이 데리고 따고, 언덕 밭은 아내와 함께 맨다.  
집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직 한 책상과 책이 있을 뿐이다.<sup>52)</sup>

위의 시에서 “門前車馬疏”는 마치 도연명의 飲酒(其五)에 보이는 “초가집을 엮어 사람 사는 곳에 살아도 수레나 말의 시끄러움이 없다네.(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의 귀절이 연상된다. 한산자가 전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와 과실을 따고 집안에 책상이 있는 모습은 도연명의 은거생활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며,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세상 근심과 단절된 분위기가 역역하게 느껴진다. 또한 《장자》 〈逍遙遊〉의 “뱀새가 깊은 숲속에 집짓고 사는데 나뭇가지 하나면 된다(鸞鷯巢於深林, 不過一枝)”는 문장을 인용하여 자신도 뱀새가 나뭇가지 하나에서도 편안한 것을 늘 생각한다(“常念鸞鷯鳥, 安身在一枝”)며 安分自足的 뜻을 밝히고 있다.<sup>53)</sup> 이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과연 도연명과 같이 귀은을 즐겼을까?

한산자는 타고난 직선적인 성격과 언행 등으로 당시의 향민과 어울리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자주 남의 원한을 사는 등 “미치광이(顛狂漢

51) “天生百尺樹, 剪作長條木, 可惜棟梁材, 拋之在幽谷, 年多心尚勁, 日久皮漸禿, 識者取將來, 猶懼柱馬屋.”  
52) “茅棟野人居, 門前車馬疏, 林幽偏聚鳥, 溪澗本藏魚, 山果携儿摘, 阜田共婦鋤, 家中何所有, 唯有一床書.”  
53) “琴書須自隨, 祿位用何爲, 投輦從賢婦, 巾車有孝兒, 風吹曝麥地, 水溢天魚池, 常念鸞鷯鳥, 安身在一枝.”

)<sup>54)</sup>의 취급을 받았다. 반면 도연명은 새가 둥지를 찾아 돌아오듯(〈歸鳥〉) 머물 곳을 찾아 田園으로 돌아온다. 그는 이웃과도 잘 어울렸고 농사를 지으며(“茱菊東籬, 種豆南山”) 즐거움을 찾았다. 〈庚辰歲九月中于西山獲早稻〉에서 “다만 오래도록 이 갈기를 바라나니, 몸소 농사지음은 탄식할 것이 없노라.(但願長如此, 躬耕非所嘆)”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산자의 시에서는 어디에도 躬耕의 즐거움을 읊은 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귀은하자마자 현실에 대한 미련으로 방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그의 1차귀은은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 풀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찾아 다시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깊은 숲속에 쉬노라면, 태어날 때부터 농부이다.  
 처세에 이미 질박하고 정직 하며, 말을 함에는 아첨이 없었다.  
 내 몸을 지켜 재물 멀리 했고, 보화를 얻는 것은 그대에게 맡겨 둔다.  
 어떻게 함께 떠들며, 물결위의 오리를 끝까지 바라볼 것인가.<sup>55)</sup>

위의 시에서 한산자는 자연에 사는 자신의 인생을 천생 농부가 농사짓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전원생활의 즐거움이나 자연의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농부를 세상의 영화와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그가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한산자는 도연명의 끈고 바른 처세나 언행을 자주 연상하고, 자신의 귀은을 도연명과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속까지 귀은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는 한산자의 은거가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현실도피였고, 출사실패에 따른 정신적 방황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치 못할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산자가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또 다른 까닭은 도연명이 “천성적으로 質朴하고 자연스러운(質性自然)”것과는 달리 한산자는 “처신이 질박하고

54) “我在村中住, 衆推无比方. 昨日到城下, 却被狗形租. 或嫌啞太窄”, “寒山出此語, 此語無人信”, “寒山出此語, 冥似顛狂漢. 有事對面說, 所以足人怨.”

55) “偃息深林下, 從生是農夫. 立身既質直, 出語無諂諛. 保我不鑿壁, 信君方得珠. 焉能同泛漉, 極目波上晷.”

곧기(“立身既質直”) 때문이었다. 특히 직선적인 언행과 다혈질적 성격으로 향민들과 부딪치기 일쑤였다. 따라서 전원에서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어찌 면 당연하였다. 마음으로부터는 도연명을 따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鄉民은 물론 가족과의 소통마저 단절되었고, 피폐된 상태에서 다시 寒山에 入山하면서 2차 귀은을 시작한다. 도연명은 한번의 귀은에서 바로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지만, 한산자가 정신적 안식과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상 2차 귀은 이후 출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후였다. 이 과정에서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게되는데, 이 또한 도연명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한산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안식과 자유를 얻고자 세상으로부터 격리된(“寒山杳隱處, 絕得雜人過.”) 산속으로 들어가(“隱士遁人間, 多向山中眠”) 2차 귀은에 들어간다. 2차 귀은에서 가족들과도 헤어져 홀로 십여년을 살면서(“十年歸不得”) 당시 유행하던 도교에 沒入하고<sup>56)</sup>, 한동안 신선술을 추구하였다. 당시 그의 은거지는 3개의 형태, 즉 鄉村(“我住在村鄉)-岩下(“家住綠岩下”)-重岩(“重岩我卜居”)이었다. 이는 그의 귀은이 有家-離家-出家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sup>57)</sup> 또한 가족과 생활하던 鄉村을 떠나 入山하고, 홀로 도교 등 종교적 체험을 통해 초탈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2차 귀은에서 그는 율도를 넘나드는 사상적 자유로움을 통해 마침내 그가 바라던 자유를 찾게 된다.

오래 한산에 살아 몇 가을이 지났던가, 홀로 노래하며 시름 걱정 끊었다.  
 사립문은 닫지 않아 늘 한적하고, 단물 솟는 샘은 절로 흐른다.  
 돌집 마당 화로엔 진흙 솟 끊고, 송홧가루 측백나무 차 유향 담은 병.  
 배고파 가타약 한 알 먹으니, 마음은 어우러져 돌에 기댄다.<sup>58)</sup>

한산자는 이미 몇 해 동안 한산의 石室에서 당시 유행하던 불노장생을 추구하며 伽陀藥이라는 丹藥을 먹으며 신선을 꿈꾸었다. 그러나 곧 불노장생을 갈구하다

56) “欲得安身處, 寒山可長保. 微風吹幽松, 近听鶯逾好. 下有斑白人, 喃喃讀黃老. 十年歸不得, 忘却來時道.”

57) 羅時進, <寒山的身分與通俗詩敘述角色轉換>, 《江海學刊》, 2005, 2

58) “久住寒山凡几秋, 獨吟歌曲絕無憂. 蓬扉不掩常幽寂, 泉涌甘漿長自流. 石室地爐少鼎沸, 松黃柏茗乳香甌. 飢餐一粒伽陀藥, 心地調和倚石頭.”

실패했던 秦始皇과 漢武帝를 통해 神仙의 불가능<sup>59)</sup>을 깨닫는다. 또한 한산시에는 寒山에 入山한지 삼십년 후 친구를 찾다가 다 죽고 없음을 보고 인생무상을 절감하는 시가 보인다.<sup>60)</sup> 당시 그는 산속에 홀로 살며 고독과 허무를 체감하였을 것이다. 佛敎로의 접근은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오랫동안 佛理에 몰입하였던 것 같다. 한산시 중 불교 관련 시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그는 儒佛道를 넘나들며 차츰 자연 속에서 소요와 자족의 즐거움을 구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한산시 중 약 삼십여 수가 山水隱逸詩이다.

한산자가 은거하던 天台山은 여름에도 정상에는 잔설이 있어 雪巖이라고 불리우는 등 경관이 빼어나 예로부터 중국 동남의 명산으로 불리어 왔으며, 특히 智者大師가 이곳에 天台宗을 개창하여 이로부터 천태산은 佛敎의 중요한 도장이 되었다. 한산자는 인적이 드물고 외계와 단절된 寒巖(“寒岩深更好, 无人行此道.”)에 은거하였는데, 이 또한 “사람 사는 곳에 초가집을 짓고(結廬在人境)”살며 자유로움을 추구하였던 도연명과 다른 양상이다. 다음의 시를 보자.

지저귀는 새 소리에 정을 못이겨, 홀로 초암에 누워 듣고 있나니.  
 앵도는 알알이 붉게 빛나고, 버들은 줄줄이 드리워 있네.  
 아침 햇빛은 푸른 산을 머금고, 개는 구름은 맑은 못을 씻는다.  
 누가 저 티끌세상 벗어나, 이 한산 남쪽으로 올라올까.<sup>61)</sup>

위의 시에서 한산자는 자연속에 몰입된 자신을 자연 속의 一物로 파악하고 자연과의 일체감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다. 또한 세속을 초탈하여 자유롭고 담담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59) “常聞漢武帝, 爰及秦始皇, 俱好神仙術, 延年竟不長, 金台既摧折, 沙丘遂滅亡, 茂陵與驪岳, 今日草茫茫。”

60) “一向寒山坐, 淹留三十年, 昨來訪親友, 大半入黃泉, 漸減如殘燭, 長流似逝川, 今朝對孤影, 不覺淚雙懸。” 錢穆先生은 〈讀寒山子〉에서 “이때는 한산이 육순이 넘었고 함께 귀을 했던 처와 아이들 과도 이미 헤어진 후였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연명과 비교될 수 있는 가족과의 동거하면서 전원예 귀의하여 지냈던 과정은 그의 일차적 귀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별로 길지 않았던 것 같다.

61) “鳥語靑不盡, 其時臥草庵, 櫻桃紅燦燦, 楊柳正毵毵, 旭日衝青嶂, 晴雲洗澗潭, 誰知出塵俗, 馭上寒山南。”

푸른 시내에 샘물이 맑고, 한산에는 달빛이 희다.  
말없이 앞에 정신이 절로 맑고, 쉼을 터득함에 境이 더욱 고요하다.<sup>62)</sup>

위의 시는 언어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오묘한 정신세계를 함축적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碧澗泉水”의 淸淨함과 “寒山月華”의 純白을 교묘히 대비시켜 생생한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산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深淵한 청정세계와 純白한 자신의 정신세계를 아름답게 대비시키고 있다. 여기서 청정과 純白한 우주에 대한 觀照는 그가 幽玄의 세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데, “默知神自明”과 “觀空”은 그가 체득한 玄理를 표시하고, “境逾寂”은 玄理 체득을 통해 幽隱의 경지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禪의 경지이다. 이는 禪을 통해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세계, 즉 우주 자연과 일치하는 완전 自然의 경지를 추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은 말년까지 이어져, 한산자는 계속 거의 독립적 생활을 하였다. 國淸寺를 떠난지 이십년 후 다시 國淸寺에 들렀을 때, 국청사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리석다거나 “분명히 알면서 그런다고 꾸짖지만”, “그들이 뭐라든 응대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sup>63)</sup>에서 보듯, 그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유자재의 삶을 추구하였다. 백 살이 넘도록 구름 산을 지키며<sup>64)</sup>, 홀로 寒巖에서<sup>65)</sup> 悠悠自適하며 은거하였던 것이다.

한산자와는 달리 도연명은 산속 아닌 마을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았다. 그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을 면하기 힘들지만<sup>66)</sup> 늘 “백성들 살아가자면 근면

62) “碧澗泉水淸, 寒山月華白. 默知神自明, 觀空境逾寂.”  
63) “憶得二十年, 徐步國淸歸. 國淸寺中人, 盡道寒山痴. 痴人何用疑, 疑不解尋思. 我尙自不識, 是伊爭得知. 低頭不用問, 問得妄何爲. 有人來罵我, 分明了了知. 雖然不應對, 却是得便宜.”  
64) “昔日經行處, 今夏七十年. 故人無來往, 埋在古冢間. 余今頭已白, 猶守片云山. 爲報後來子, 何不讀古言.”( 옛날부터 다니던 곳에 칠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 왔다. 이곳은 그가 삼십 세 쯤 처음으로 천태산 자락에 들어와 은거하였던 곳이며 그 후 칠십년이 흘렀으므로 백살 쯤으로 추정된다.)  
65) 寒巖에서의 독립생활에 대해 한산시의 표현을 보면 “我獨居” “獨靜坐” “獨自居” “獨臥” “獨回” “獨吟”이다.  
66) 〈雜詩〉 “躬親未曾替, 寒餒常糟糠”(몸소 밭 갈기를 그만 둔적 없어도 춥고 굶주려 늘 술지게미와 겨나 먹는다오.)

해야 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다”<sup>67)</sup>며 노동과 농사를 권면하였다. 그러면서도 욕심과 집착은 물론, 소유하는 모든 것의 得과 失을 잊고, 천지 만물과 一體를 이루는 삶에 도달하고 있다<sup>68)</sup>. 袁行霽는 《陶淵明研究》에서 回歸 양상의 특징을 田園, 自然, 空無의 셋으로 나누었는데,<sup>69)</sup> 만년을 空無로의 회귀라고 하였다. 〈歸園田居〉其四에 보면

”인생은 환상 같아서, 마침내 공허로 돌아가리라.(人生似幻化, 終當歸空無)“.

또 〈井邊神〉神釋에 보면

천지는 사사롭게 힘쓰지 않으며, 만물은 절로 변성해 서 있다.  
사람은 삼재 가운데 하나이니, 어찌 내가 있는 까닭이 아니라.

(중략)

심히 걱정하면 우리 삶 상처 받으니, 마땅히 운명에 맡겨 살아가리.  
큰 조화의 물결을 좇으리니 기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끝나야 한다면 끝나는 것이니, 다시 홀로 깊은 걱정 하지 말리라.<sup>70)</sup>

위 시에서 자신이 있는 것도 천지 가운데 하나이니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자연과 일체가 되면, 기쁨도 슬픔도 없을 것임을 주장한다. 즉 어차피 언젠가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는데, 걱정할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이는 莊子の “天地와 내가 함께 살고,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sup>71)</sup>는 것과 상통한다.

이상과 같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치지만 도연명과 한산자의 귀은은 중국적으로는 동일하게 귀결하고 있다. 즉 도연명은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경작하며 物我一體의 자유세계에 도달하고, 한산자는 산속에서 獨居하며 종교적 체험을

67) 〈勸農〉“民生在勤, 勤則不匱.”

68) “에오라지 조화를 따라 죽어 돌아가리니, 천명을 즐겨워하거늘 다시 무열 의심하리오.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 〈歸去來兮辭〉)”

69) 袁行霽, 《陶淵明研究》, p 112, 북경대학출판사, 1997.

70) “大鈞無私力, 萬物自森著. 人為三才中, 豈不以我故..... 甚念傷伍生, 正宜委運去. 縱浪大化中, 不喜亦不懼. 應盡使須盡, 無復獨多慮”

71) 《莊子·齊物論》“天地與我並生, 而萬物與我爲一.”

통해 自由自在의 경계에 이르고 있다. 결론은 같으나 과정은 완전히 다른 셈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산자와 도연명의 귀은을 출사와 연관하여 논의하면, 천성적으로 출사에 소극적이었던 도연명은 출사에 성공한 반면, 출사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한산자는 출사하지 못하였다. 귀은에 있어서도 도연명은 천성에 따른 자기 선택이었지만, 한산자는 과거 실패이후 심리적 공황과 극심한 궁핍으로 고향을 떠나 아무도 찾지 못할 먼 天台山 기슭에 귀은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자연에 귀은하지만, 도연명은 농촌의 전원에서 여유롭게 안식한 반면, 한산자는 외딴 산자락에서 인생의 회한을 맞본다. 이처럼 중년이후 두 사람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出發하고 있다.

또한 문벌정치시대인 東晉의 陶淵明에게 출사는 생계의 방편에 불과하였지만, 唐代의 寒山子에게 출사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었다. 한산자는 시종 “進則仕”라는 사회적 소명감과 사회계도자라는 지식인의 사명감을 포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귀은이후 도연명은 전원생활을 만끽하지만, 한산자는 방황의 연속이었다. 그는 쉽게 출사를 포기할 수 없었고, 목구멍을 죄는 가난과 무능한 가장에 대한 가족들의 냉소로 더욱 괴로웠다.

이 과정에서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때 도연명을 연상하기도, 또 도연명을 따라도 해보지만 限은 풀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도연명이 한산자에게 미친 영향은 분명히 매우 크다.

그 후 다시 산속 깊은 곳으로 귀은 하는데, 이것이 2차 귀은이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된 채 홀로 산 중에서 때론 신선술을 추구하며 도교에 몰입하는가 하면, 회한 뒤에 밀려오는 인생무상의 허무감에 불교

에 몰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신선도 승려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식을 찾게 된다. 그로부터 자유자재의 날개를 달고, 천태산 암자 곳곳에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도연명이 수많은 전원시를 남기듯, 한산자도 산수시를 남기지만, 주로 社會啓導詩를 많이 남겼다. 이는 출사를 통해 이루어던 사회참여를 시를 통해 재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사람 다 은일시인이라는 큰 틀에서는 도연명과 한산자를 亞流로서 논할 수 있겠으나, 그들의 구체적 삶의 역정을 보면 결코 동류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산곡은 왜 그렇게 평했을까? 그것은 宋代의 문단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미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亞流라는 개념은 폄하의 의미보다는 은일시인의 원조인 도연명과 비견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흔히 한산자를 불가에서는 “詩僧”<sup>72)</sup>이라 칭하는데, 실제로 2차 귀은 후 쓴 시는 불교적인 禪趣가 농후하다. 한산시는 宋初에 이르러 “集錄”으로 출간되면서, 佛敎的 禪趣가 濃厚하여 문단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원인은 당시 많은 禪錄과 偈頌이 정리되면서 한산시도 함께 정리된 까닭도 있지만, 사상적으로 性理學의 영향으로 禪詩가 많은 한산시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宋代의 詩風이 說理化, 議論化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한산시의 偈頌式的 說理風格이 이러한 조류와 일치하였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한산시는 많은 송대 시인들에 의해 애송되고, 당시 문학 창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황산곡 외에도 蘇軾은 擬寒山十頌에 次韻하여 八首를 지었는가 하면<sup>73)</sup>, 王安石은 〈擬寒山拾得十二首〉(《臨川文集》, 卷三)를 지어 外孫에게 주었다<sup>74)</sup>. 즉 송대 문인들은 한산자의 說理的이며 스스로 “鄭玄의 주석도 번거롭게 할 것 없고, 毛萇의 해설도 필요없다”<sup>75)</sup> 면서 平易, 淺近한 언어와 白描 反覆 對比등의

72) 《新唐書·藝文志》에서는 釋家類에 수록되었고, 《全唐詩》에는 唐代釋氏詩人에 귀속시켰다.

73) “蘇州定慧長老守欽, 使其徒卓契順來惠州問予安否, 且寄擬寒山十頌, 語有璨忍之通, 而詩無島可之寒, 吾甚嘉之爲和八首” 《東坡全集》卷二十三, 〈次韻定慧欽長老見寄八首〉

74) “...諸孫肯來游, 誰臨川無船, 姑示汝我詩, 知嘉此林壑. 未有擬寒山, 覺汝耳目榮. 因之授汝季, 季也亦淑靈.” 《臨川文集》卷一, 〈寄吳氏女子〉

75) “有人笑我詩, 我詩合典雅. 不煩鄭氏箋, 豈用毛公解. 不恨會人稀, 只爲知音寡. 若遭趁宮商, 余病莫能

표현방법을 즐겨 쓰면서 口語化 通俗化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송대의 문인들은 한산시의 禪趣적인 면과 백화적인 표현 기법 등에 주목하였다. 그들이 애송했던 시는 대부분 寒山子의 後期詩로 禪趣가 있는 한적하고 淸逸한 풍격의 시였다. 그런데 이러한 한산시의 풍격은 질박하고 담백한 도연명 시의 풍격과 큰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도연명과 한산자 모두 은사라는 점, 한산시 중 일부에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인용한 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山水 田園詩를 썼다는 점 등 표면적으로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한산자는 도연명의 亞流'라는 黃山谷의 평가가 단순히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하였다면 대부분 은사들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산자는 도연명의 亞流'라는 주장은 송대 문단에서의 한산시 열풍을 반영하고, 도연명과 같은 반열에서 한산자를 인식한다는 한산자에 대한 높은 존중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黃庭堅 《山谷全集》欽定四庫全書本  
 錢學烈校評 《寒山拾得詩校評》天津古蹟出版社 1998  
 李誼注釋 《禪家寒山詩注》臺灣.正中書局印行 2001  
 金達鎮譯 《寒山詩》문학동네 2001  
 陳慧劍 《寒山子研究》東大圖書公司 1989  
 李成鎬譯 《陶淵明全集》문자향 2001  
 袁行霽 《陶淵明詩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97.  
 龔 斌 《陶淵明傳論》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遠欽立校注 《陶淵明集》里仁書局, 1980  
 沈振奇 《陶謝詩之比較》學生書局, 1986  
 李辰冬 《陶淵明評論》東大圖書公司, 1975

---

罷. 忽遇明眼人, 卽自流天下."

- 華東師範大學編譯,《陶淵明 李白新論4》上海古籍出版社, 2002.
- 차주환 《陶淵明全集》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文史知識編輯部編《儒佛道與傳統文化》,中華書局, 1987
- 蔣星煜《中國隱仕與中國文化》龍田,
- 洪順隆《由隱逸到宮體》河洛出版社, 1980
- 杜松栢《禪學與唐宋詩學》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 羅時進《唐詩演進論》,江蘇古蹟出版社 2001.
- 李曉茜 .徐永昕,〈典故中的中國古代隱士文化〉語文學刊, 第11期. 2005
- 吳在慶〈談唐代隱士的隱逸動機與歸隱之路〉周口師範大學學報, 第21卷, 第4期,
- 趙滋蕃〈寒山其人其詩〉《中國詩季刊》,第四卷, 第三期, 1974, 9

#### 《中文提要》

關於寒山子和陶淵明的歸隱和出仕, 對出仕消極的陶淵明倒是成功, 反而把自己的人生全部投入的寒山子却沒有出仕。寒山子科舉失敗以後, 因心理的恐慌和極度的窮困, 離開故鄉去誰也找不到的遠在天台山的山腳下歸隱了。雖然兩個人都歸隱大自然, 但陶淵明在農村享受安逸的田園生活, 而寒山子却在偏僻的山角下飽嘗人生的悔恨。就這樣, 中年以後兩個人的命運根本上有着不同的出發。

隱逸詩人的大標題上, 淵明和寒山子可以被評論為亞流, 但他們具體的人生歷程上決不能看成是同流。

黃山谷把寒山子評為陶淵明的亞流, 好像跟宋代文壇環境有着緊密地關係。在這裡, 把亞流的概念並不是貶值的意思, 是和隱逸詩人的始祖陶淵明可以比肩的意思。寒山詩到了宋代初被出刊為集錄, 因佛教的禪趣濃厚, 所以受到了文壇的廣為注目。當時, 很多禪錄和偈頌被整理的同時寒山詩也被整理。因為受到心理學的影響和禪有關的很多寒山詩自然引起了關心。並且宋代的詩風發展為說理化, 議論化方向。所以寒山詩的偈頌式說理風格跟這些潮流一致, 也成了引起關心的重要原因。隨之而來, 很多宋代詩人愛頌寒山詩, 並且對當時的文學創作也起到了影響。也就是說, 宋代文人非常享用寒山子的平易, 淺近的語言和白描反復對比等表現方法, 並且主力于口語化, 通俗化。像這樣, 宋代的文人非常注目于寒山詩禪趣的方面和白話的表現技法。之所以, 他們愛頌的詩大部分是寒山子後期的詩。很有禪趣, 閑寂, 清逸風格的作品。這樣的寒山詩風格跟

陶淵明的朴素, 坦白的風格有着很大的差异.

終而言, 之, 陶淵明和寒山子都是隱士, 寒山詩中的一部引用了陶淵明的歸去來辭. 還有兩個人都寫了山水田園詩等, 表面上有着類似性. 但是如果黃山谷主張寒山子是陶淵明的亞流的根据是類其似性, 那么大部分隱士也不能例外. 陶淵明的亞流主張反映了宋代文壇里的寒山詩熱風, 并且和陶淵明一樣的班列中認識寒山子看成是對寒山子尊重的表現為妥当的.

**關鍵詞** : 도연명, 한산자